어려운 시대에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준 심리학자 이진숙

차 재 호 |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의 심리학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음력 정초에 서울에 있던 한국인 심리학 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심리학회의 출범과 같이 출발한 것으로 보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 심리학이 들어온 것은 그보다 이르지만 '한국'이란 이름이 붙게 되면 자연히 해방 후로 날짜를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때 참석한 심리학 전공자들의 면면을 보면 임석재, 이재완, 이진숙, 방익모, 성백선, 이본영, 그리고 고순덕의 7인(존칭 생략)이었다. 이들 외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로는 윤태림과 이의철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일제기에 일본 대학에서 심리학을 수학했던 사람들이다. 해방이 되자 한반도의 유일한 정규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서 가르치던 일본인 교수들이 철수하고 공백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학 강단에 교수로 서게 되었다. 이들이 대학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대학교수로서의 수련을 쌓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회사원이나 중학교 교원, 관리 등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이다.

한국심리학계의 시발

해방 후에 서울대가 생기면서 심리학과가 독립학과로 생겼다. 독립학과란 말을 강조하는 것은 경성제대 안에서는 심리학은 법문학부 철학과의 심리학 전공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심리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해방 후에 심리학계에 남아 활약한 사람으로는 임석재, 윤태림, 이진숙, 이의철, 그리고 이본영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가 설립되면서 여기에는 이진숙, 이본영, 그리고 고순덕의 3인이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들 중 뒤의 두 사람은 서울대를 곧 떠나게 되었고 이진숙만이 잠깐 자리를 떠났다가 부산 피난 시절 다시 돌아와 사망할 때까지 서울대 심리학과를 이끌어 갔다. 다음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이진숙 교수를 특히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원로들 중에서 뽑아서 부각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다. 나의 학부와 대학원 시절의 은사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가 서울대 심리학과를 초기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의 혼자 이끌어온 장본인이라는 점이고, 당시 한국의 어느 심리학자보다도 전란 이전의 혼란, 전란기와 전란 직후의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도 학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은 사람으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특히 아주 적은 수의 심리학자들 밖에 없었는데, 생활에 쫓겨 제대로 학문다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학문의 의지를 불태운, 외로운 처지가

"

그의 관심은 20대만 제외하면 그 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성격의 문제, 특히 한국인의 성격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1958년 무렵부터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이에 가미되었다.
사회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술적인 논문보다는
월간잡지 등에 기고한 잡문들에서 잘 나타난다.
또 임상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프로이드에 대한 관심에서 우러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지금도 안쓰럽게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그는 다른 면에서는 다른 당대의 원로들 보다 행운을 누렸다. 서울대 심리학과에 들어오는 모든 준재를 거의 혼자 맡아 11년 동안 가르치는 행운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다른 원로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가 이런 위치를 그냥 앉아 즐긴 것이 아니고 어느 원로보다도 꼿꼿한 학자로서의 자세와 폐병으로 '피골이 상접' 이란 표현에 가까운 체력으로 열심히 학문의 길에 정진했다는 점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후대 심리학자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편한 환경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교직을 가지고 일하는 젊은 심리학자들에게는 가끔 학자로서의 꼿꼿함이나 학문을 대하는 엄격성이 결여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은 이진숙 교수와 같은 분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일제기의 교육과 경력

이진숙은 1908년에 출생하여 1962년 11월 28일 서울 동숭동 옛 문리과대학 구내 본관 건물 심리학교실 동 뒤에 있던, 그의 가족의 주거지였던 한 부속 건물에서 사망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심리학을 세 번째로 전공한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효제동으로 되어 있는데, 출생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20세에 경성제대 예과(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고등학교에 해당)에 들어가 2년만에 수료하고 1930년 4월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심리학 전공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3년 후인 1933년 봄에 졸업했다. 경성제대 5회 졸업이다. -앞서 본 임석재 교수는 1회 입학하고 2회로 졸업해서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심리학자가 되었다. 경성제대 심리학교실 출신 한국인으로서도 제 1호이고, 그 다음이 윤태림, 세 번째가 이진숙이었다. 졸업 직후 바로 동대학 심리학 교실의 조수로 1937년 3월까지 근무했다. 이 조수 임명은 일제하의 대학을 나오는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경성제대 심리학 교실 출신으로 오직 그만이 그런 경력을 가졌다. 이진숙 교수가 대학의 조수 생활을 시작한 것은 만 25세 때에 해당한다.

조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조선아동의 색채호오(色彩好惡)에 관여하여"라는 논문을 일본심리학회가 발행하는 잡지에 발표했고, 다음해에는 "비둘

기의 수식별(數識別)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경성심리학회보(경성제대 심리학교실이 발간한 잡지)에 발표했다. 그는 뒤에 이 둘을 포함해서 모두 66편의 논문, 잡문, 또는 저서를 쓰는데, 실험연구는 20대 때에 한 이 둘로 끝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진숙 교수가 나태해졌다거나 바빠져서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해방 후 대학의 연구 환경이 '30년대의 경성제국대학보다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 여러 증거로 보아 2000년대인 지금도 대학의 연구 환경은 '30년대의 경성제대의 그것만 못하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것이다.

만 4년 동안의 대학조수 생활을 마친 그는 대학을 떠나 1937년 4월부터 1939년 12월 말까지 일본 빅터 축음기회사 사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판매, 전전의 심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몸으로 산업심리학을 실천한 셈이다. 1년 간 특별히 할 일 없이 보내다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약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는 전남 여수군 상업조합 이사가 되어 정전 전해(1944년) 2월까지 근무하고, 다음 달부터는 조선 경금속 주식회사 사원이 되어 노동능률의 문제를 담당했다. 이렇게 해서 해방을 맞은 그는 해방되던 해 말에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으로 미군 군정 하에 생긴 경성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해방 후의 경력

1945년 12월 그는 경성대학 예과 교수가 되었다. 37세 때의 일이다. 대학교수로서의 생활의 시작이었다.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그 해 9월에 문리과대학 안에 새로 생긴 심리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이 일터에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6.25 발발 직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교수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군정청의 후원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 그의 지병인 폐결핵을 은폐한 사실이 미국 본토 상륙 직전에 발각되어 송환 조치되고, 이 문제에 관련된 교수들이 징계를 받게 된데서 기인하였다. 이 짧은 3년 동안 장병림, 정한택, 정양은, 김성태, 박창진, 오원철 등이 그를 거쳐 졸업했다. 해방 후에 서울대 심리학과가 길러낸 제 1세대 심리학자들이다. 서울대를 사직한 후 1949년 9월부터 약 3개월 그는 문교부 정신측정연소의 소원으로 일했고, 또 1949년 10월부터 약 1년간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사로서도 근무했다. 그러던 중 6.25 동란이 터져 남쪽으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1950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미공군대학 인적자원연구부의 심리학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3개월 동안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심리학) 기감의 직함도 지녔었다. 이어 1951년 5월 30일부터 1951년 12월 12일까지는 미제8군 심리전과(포로심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런 군대의 직함이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던 중 1951년 12월 이진숙은 제자인 장병림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심리학과의 교수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때는 그가 만 43세일 때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망할 때까지 11년을 봉직하게 된다. 필자가 이 교수를 만난 것은 부산 피난교사에서 그 다음해(1952년) 봄이다. 그러니까 그가 문리대 교수직으로 돌아 온 지 얼마 안되어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서울대가 1953년 서울의 교사로 복귀한 뒤 한동안 학과는 그의 '일인통치' 하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더 악화돼서 집이 학과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연구실에 자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학과 안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가는 듯이 보였다. 당시 학과에는 이진숙 교수 외에 장병림 교수와 조금 뒤(1956년)에 중앙대에서 옮겨 온 이의철 교

"

이진숙 교수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은
우선 그의 학문적 엄격성을 생각한다.
그는 강독을 하면서 헛되거나 부정확한 표현,
사족을 붙이는 것에는 매정할 정도로 엄격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질색하였다.
그는 간결한 표현만을 쓸 것을 요구했고,
자신도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그대로 따랐다.

"

수, 세 사람의 교수가 있었다. 50년대 초반 이전에 입학해서 나중에 학자로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진숙 교수가 길러 낸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958년 6월에 한국심리학회의 제 2대 학회장이 되어 2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이진숙의 업적

앞서 말한 대로 이진숙은 20대 나이에 2편의 실험 연구를 발표 한 이래 다시 실험연구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의 주요한 심리학적 업적으로는 『심리학개론』 두 권(1949; 1950), 독일 심리학자 Karl Bühler의 『아동정신발달개요』란 책의 번역인 '아동심리학개요' (1956), '프로이드' (1960), 그리고 Woodworth의 *Contemporary Schools of Psychology*의 번역인 『현대심리학』(1962)을 꼽을 수 있다. 개론의 두 번째 것은 고등학교용으로 쓰여진 것이다. 첫 번째 것은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심리학개론 책으로 필자도 입학해서 이 책으로 심리학에 입문하였다. 이들 이외에 그는 Wechsler지능검사 한국판(1952)과 Guilford의 13개 성격요인을 재는 성격검사를 "수요회"라는, 필자에게는 아직 신비로 남아 있는 단체의 이름을 빌어 발표했다.

이진숙 교수의 논문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심리학에 있어서의 조작주의" (1955), "괄도인심의 특징" (1958), "한미대학생의 도덕적 태도" (1959), "괄도인의 성격에 대한 선입관념" (1959), 그리고 미국 Ohio 주립대학의 Rettig 교수와 공저로 내놓은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of South Korean Students Before and After Korean Revolution" (1963)이다. 조작주의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심도 있는 방법론 논평이라고 볼 수 있다. 괄도인의 특징, 한미 대학생의 도덕적 태도, 괄도인 성격에 관한 선입견, 그리고 5.16혁명 전후의 대학생 도덕 판단을 다룬 영어논문 등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낸 연구보고서의 성격을 띤 것들이다. 마지막 연구의 경우는 필자가 자료 수집을 돕기도 하고 한국측 자료를 요약해 Rettig에게 보내는 일도 도왔던 연구이다. 이들 조사 연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조작주의 논문을 제외하고 모두 사회심리학적인 논문이라는 것이다. 조작주의 이후에 쓰인 3편의 논문은 필자가 군에 입대해서 연구실에 없을 때 또는 제대 직후에 쓰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진숙 교수가 말년에 사회심리학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늦게까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진숙의 필생의 업적을 통해 보면 어떤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이진숙의 업적을 모두 수

집해서 업적 목록을 포함한 문집을 펴낸 이관용 교수의 노고가 없었다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임을 밝힌다. 우선 그의 관심은 20대만 제외하면 그 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성격의 문제, 특히 한국인의 성격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1958년 무렵부터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이에 가미되었다. 그것은 그가 『프로이드』를 쓰기 위해 프로이드에 관한 문헌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사회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술적인 논문보다는 월간잡지 등에 기고한 잡문들에서 잘 나타난다. 또 임상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프로이드에 대한 관심에서 우러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런 월간잡지나 신문 등에 나온 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문집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의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넓게 뻗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진숙 교수가 업적을 낸 기간은 20대의 것을 제외시키면 1949년에서 1962년까지이다. 좀 간단히 말하면 그의 저작 연구활동은 195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10건의 주요한 심리학적 업적과 50여 편의 수필이나 논설 등을 써낸 것이다. 이 10년 사이에 대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걷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건강 상태를 지닌 사람으로서 그만한 업적을 이룬 것은 그로서는 필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학문적 태도

이진숙 교수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은 우선 그의 학문적 엄격성을 생각한다. 그는 심리학과에 갓 들어온 학생들에게 강독을 하면서 헛되거나 부정확한 표현, 사족을 붙이는 것에는 매정할 정도로 엄격했다. 즉석에서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질색하였다. 그는 간결한 표현만을 쓸 것을 요구했고, 자신도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그대로 따랐다. 그는 한국심리학회가 한때 대한심리학회로 이름을 고친 것에 대해 극히 못마땅히 여겼다. "대한"과 같은 표현은 과장성세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늘 실험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진숙 교수가 나중에 성격검사 등에 열중하는 것을 일종의 배반으로 받아들여 그의 성격검사 제작 작업에 등을 돌릴 정도였다. 물론 그것은 필자가 너무 어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교수 자신이 연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였다. 그는 오직 학생을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한 태도로만 평가했다. 그만큼 그는 학문적인 태도에서는 심리학계의 동년배 학자나 후배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그의 손을 거쳐 나간 학자들에게서 오늘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도 강의실에서 실험심리 내지 기초심리학을 강조하면서 연구에서는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차재호

서울대 및 동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 of Arizona 대학원에서 MA 학위를 딴 뒤 미국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대학원에서 Ph.D. in Psychology 학위를 받았다. 한국 심리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 부설 심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심리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학술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실험설계법』(공 · 편), 『사회심리실험연습』(편), 『문화설계의 심리학』 등과 "한국사회에서의 심리학의 역할 : 현황과 전망"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